

# 『素問』 「脈要精微論」 ‘春日浮’에 대한 새로운 解釋

嚴 東 明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 內容提要(Abstract)

『素問·脈要精微論』中“春日浮，如魚之游在波”之“浮”字，大部分學者將它解釋為浮脈。可是從“春日浮，如魚之游在波”之後文中出現的有關夏季，秋季，冬季的內容可知：均為針對脈動之位而言，故“春日浮”亦應解釋為春季的脈動之位方妥。若將‘浮’視為脈動之部位 則可參考『靈樞·終始』中所提到的春氣所在於‘毛’，或『素問·刺要論』中所提及的春氣應於‘毫毛腠理’所說。可將“春日浮”之“浮”，視作輕浮於皮膚之的淺表的毫毛部分。

由此可知：『脈要精微論』中的“春日浮，如魚之游在波，夏日在膚，泛泛乎萬物有餘，秋日下膚，蟄蟲將去，冬日在骨，蟄蟲周密，君子居室”之文所示‘春日浮’，‘夏日在膚’，‘秋日下膚’，‘冬日在骨’都是在提示各個季節中脈氣所現之處或是查其脈位之所。並通過‘如魚之游在波’‘泛泛乎萬物有餘’‘蟄蟲將去’‘蟄蟲周密，君子居室’來描繪四時脈--“弦脈”，“鈎脈”“毛脈”及“石脈”。換言之，春季醫者指端未觸及皮膚，却在皮毛處便可豫知其脈象；夏季則於皮膚；秋季則於皮膚之下；冬季則於深部骨所在之處得以體查脈象，根據季節的變化，診脈須由淺及深。

關聯語(Key words) : 소문(素問), 맥요정미론(脈要精微論), 춘일부(春日浮), 맥진(脈診), 사시맥(四時脈)

## 1. 문제의 발단

脈診과 色診은 진단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도 많은 부분에 걸쳐 脈診과 色診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 편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平人氣象論」에서는 五藏의 平脈과 病脈, 死脈 등을 감별해 놓았으며, 「脈要精微論」에서는 色診과 脈診에 대한 內容, 五藏의 脈象에 따른 病證 등을 서술해 놓았는데, 각 편들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자연계 기후변화에 인체가 상응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脈象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표현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人體를 중심으로 한 경우와 自然界를 중심으로 한 경우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인체를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주로 五藏脈으로 서술하고, 자연계를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주로 四時脈으로 서술하는데, 오장맥은 오장 활동을 중심으로 맥상을 설명한 표현이며, 四時脈은 사계절에 따라 자연계의 기후변화나 기의 升降出入을 중심으로 맥상을 설명한 표현이다. 인체 장부 활동이 자연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五藏脈과 四時脈은 별개일 수가 없으며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四時脈과 五藏脈은 종종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어떤 경우에는 구분을 하지 않고 설명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脈要精微論」에 나오는 四時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를 비교 고찰한 다음 원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內經』 주석가들은 「脈要精微論」에 나오는 “春日浮, 如魚之遊在波”라는 문장 가운데 ‘浮’를 대체로 ‘浮脈’으로 주해하였다. 봄의 脈象을 弦脈 또는 浮脈이라고 인식하는데 근거하여 「脈要精微論」의 ‘春日浮’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표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의 ‘浮脈’ 개념의 ‘浮’로는 설명이 매끄럽지가 않다. 과연 ‘浮’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서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새로운 해석을 해 보고자 한다.

## II. 문제제기 및 역대 해석

「脈要精微論」에 보면 持脈之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春日浮, 如魚之遊在波, 夏日在膚, 泛泛乎萬物有餘, 秋日下膚, 蟄蟲將去, 冬日在骨, 蟄蟲周密, 君子居室. 故曰, 知內者按而紀之, 知外者終而始之. 此六者, 持脈之大法.<sup>1)</sup>

이 여섯가지를 맥을 잡는 大法이라고 한 부

분도 논란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앞부분에 언급한 계절에 따른 표현만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春日浮’ ‘夏日在膚’ ‘秋日下膚’ ‘冬日在骨’은 계절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如魚之遊在波’ ‘泛泛乎萬物有餘’ ‘蟄蟲將去’ ‘蟄蟲周密, 君子居室’은 바로 앞 내용을 좀 더 부연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름, 겨울에는 모두 맥이 뛰는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봄에 ‘浮’라 한 것이나 가을에 ‘下膚’라고 한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여름이나 겨울과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에도 “~在□□”라고 표현되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텐데,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말미암아 봄 가을의 표현을 부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맥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秋日下膚’는 좀 더 부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春日浮’를 자세히 고찰하려고 한다.

다른 계절에 맞추어 본다면 ‘浮’도 응당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맥상’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설령 ‘위치’ 개념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른 계절에 비해 모호한 설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太素』에는 『內經』 原文이 ‘如魚之遊在波’가 ‘如魚之遊在波皮’로, ‘蟄蟲周密’이 ‘蟄蟲固密’로 되어 있다. 楊上善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였는데, ‘波’가 ‘皮’로 되어 있는 것은 轉寫하는 과정에서 錯誤가 생겨 잘못 옮겨진 것 같다. ‘如魚之遊在波’는 ‘春日浮’를 물고기가 물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에 빗대어 설명한 말인데, 원문이 ‘皮’라고 되어 있다면 물고기가 피부에서 논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이상해진다. 丹波元堅<sup>2)</sup>은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58. 東洋醫學研究院. 이후 『內經』 原文은 東洋醫學研究院에서 간행된 『精校黃帝內經素問』과 『精校黃帝內經靈樞』에 근거하여 출전을 밝혔다.

2) 丹波元堅, 『素問紹識』, 人民衛生出版社, p.

皮膚에서 骨에 이르기까지 부위를 나누어 설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程士德<sup>3)</sup>은 脈이 皮膚에 떠서 滑利한 象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皮'字로 되어 있는 「太素」, 原文도 의미가 통한다고 하였다.

楊上善을 비롯하여 王冰, 馬蒔, 吳崑, 張志聰, 高世栻 등은 전체적인 의미를 部位로 설명하였다.

楊上善<sup>4)</sup>은 부연설명으로 “如魚游水, 未能周散”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물고기가 왔다갔다하거나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脈氣가 피부까지 드러나 흩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거나, 脈氣가 흩어지지 않고 살포시 피부까지 드러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봄에 皮膚까지 脈氣가 드러나 떠난다는 의미에서 부위로 해석한 점은 타당하지만, 原文을 '皮'字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다.

王冰<sup>5)</sup>은 楊上善과는 조금 다르게 部位와 脈

象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봄에는 기운이 아직 완전히 發揚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나오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뜨지는 않으며, 가을에 맥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운이 잠잠하기 때문에 下膚에서 맥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여름에는 기운이 완전히 發揚하였기 때문에 皮膚와 나란한 높이에서 맥을 잡을 수 있으며 脈象도 洪大하게 나타나고, 겨울에는 기운이 완전히 잠잠되기 때문에 深部인 骨에서 잡을 수 있으며 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봄 가을은 脈氣가 발양되고 잠잠되는 '기전'으로 설명하면서 부위나 맥상을 언급하지 않고, 여름 겨울은 脈氣가 발양되고 잠잠된 '상태'를 표현하여 부위와 맥상을 모두 언급하여 주해하였다. 馬蒔<sup>6)</sup> 吳崑<sup>7)</sup> 또한 王冰의 견해를 따라 비슷한 내용으로 주해하였다.

張志聰<sup>8)</sup>, 高世栻<sup>9)</sup>도 王冰의 설명에서 크게

藏, 君子居室, 此人事也.

432. 太素遊作游, 波作皮, 楊曰春時陽氣初開, 脈從骨髓, 流入經中, 上至於皮, 如魚游水, 未能周散. 堅按照在膚下, 膚在骨而破之, 則改作在皮, 疑是, 當考.

3)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p. 243. 張介賓注, 脈得春氣, 雖浮動而未全出, 故如魚之游在波. 太素遊作游, 波作皮, 形容脈浮于皮膚而有滑利之象, 又義亦通.

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 403. 春時陽氣初開, 脈從骨髓, 流入經中, 上至於皮, 如魚游水, 未能周散. 夏時陽氣榮盛, 脈從經溢入孫絡膚肉之中, 如水流溢, 沈沈盛長, 萬物亦然, 茂盛有餘. 此答第五病在外也. 秋日陽氣從膚漸伏於內, 故曰下膚. 蟄蟲趣暖入穴, 故曰將去. 是時陰氣從內出在皮膚, 腠理將開也. 冬日陽氣內伏, 蟄蟲閉戶固密, 君子去堂居室, 人之脈氣行骨, 故持脈者, 深按得之. 此答第六病年在內也.

5)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p. 116. 雖出猶未全浮. 泛泛平貌, 陽氣大盛, 脈氣亦象萬物之有餘, 易取而洪大也. 隨陽氣之漸降, 故曰下膚, 何以明陽氣之漸降, 蟄蟲將欲藏去也. 在骨言脈深沈也, 蟄蟲周密, 言陽氣伏

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p. 125. 春日脈體稍浮, 如魚之遊在波, 雖出而未全浮也. 夏日脈體上透於皮膚, 泛泛乎如萬物有餘, 洪大而易取也. 秋日脈體入於皮膚之下, 如欲蟄之蟲有將去之意. 冬日脈體在骨, 如已蟄之蟲深居周密, 君子於斯時也, 亦當居於室中而無煩擾耳.

7) 吳崑, 「內經素問吳注」,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p. 73~74. 象春升之氣, 未盡出于地也. 夏日脈來在膚, 泛泛然充滿於指, 象夏時萬物之有餘. 秋日陽氣下降, 故脈來下於肌腠, 象蟄蟲將去之象也. 冬時陽氣潛藏, 故脈沈下在於骨分, 如蟄蟲周密, 君子居室之象也.

8) 張志聰, 「新編素問集註」, p. 137. 魚在波, 雖出而未浮, 如春升初出之象. 在於皮膚, 浮在外也, 泛泛充滿之象, 萬物有餘, 盛長之象也. 秋氣降收, 如蟄蟲之將去外, 而內藏之象. 冬令閉藏, 故脈沈在骨, 如蟄蟲之封閉, 如君子之居室, 藏而勿出也, 此言人與昆蟲萬物生於天地之間, 同順生長收藏之氣, 是以脈象如之.

9)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 128. 春日氣機從下而上, 故春日脈浮, 其形如魚之游在波. 夏日氣機充滿於外, 故夏日之脈在膚, 其形泛泛乎如萬物之有餘. 秋日氣機從外而內, 故秋日之脈下膚, 其形如蟄蟲之將去. 冬日氣機內藏而伏, 故冬日之脈在骨, 其形如蟄蟲之周密, 復如君子之居室.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 여름 겨울에 맥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이들은 모두 봄 가을에는 잠장되었던 기운이 발양되어 나오거나 퍼져있던 기운이 잠장되어 들어가는 氣機變化를 들어 설명하면서 膚나 骨에 비견되는 분명한 부위를 설정하지 않았고, 여름 겨울에는 膚와 骨을 들어 脈氣가 發揚되는 부위를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吳崑은 다른 주석가와와는 달리 ‘秋日下膚’를 ‘下於肌腠’라 하였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곳은 다른 주가들과 같은 위치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과 달리 張介賓, 黃元御, 張琦 등은 사계절 모두 脈象으로 해석하였다. 즉 春夏秋冬 각각에 대하여 張介賓<sup>10)</sup>은 浮動而未全出, 洪盛, 洪盛漸斂, 沈伏한 脈으로, 黃元御<sup>11)</sup>는 半沈半浮, 全浮, 半浮半沈, 全沈한 맥으로, 張琦<sup>12)</sup>는 四時脈인 弦, 洪, 毛, 石으로 註解하였다. 黃元御는 계절에 상응하는 부위까지 설명하였는데, 맥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張介賓과 黃元御는 겨울 내내 잠장되었던 기운이 봄에 발양하는데, 봄에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다가 여름이면 완전히 드러나 皮膚에까지 이르고, 가을이면 다시 잠장하여 들어가기 시작하고, 겨울이면 완전히 잠장하여 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즉 맥상으로 설명하는 했지만 骨에서 膚에 이르는 사이 어느

곳에 맥기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주석가들이 주해한 내용과 상통하는 점이기도 하다.

### III. 문제점

王冰, 馬蒔, 吳崑, 張介賓, 張志聰, 高世拭 등은 ‘浮’를 升發하는 기운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인체를 중심으로 기운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름, 가을, 겨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체 氣機의 변화를 중심으로 脈象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계절에는 모두 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일관성을 잃어버렸다.

黃元御는 少陽之氣의 發揚을 염두에 두어 물고기가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의미에서 ‘半浮半沈’이라고 설명하여 楊上善과는 다른 설명을 하였다. 이같은 설명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如魚之遊在波’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만, 다른 주석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계절에는 脈이 나타나는 위치를 설명하여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봄에는 맥상으로 설명하고 다른 계절에는 맥이 뛰는 위치로 해석하여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주석가들의 공통되는 견해는 자연계의 승발하는 기운이 인체에 반영되어 春脈으로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주석가들이 ‘春日浮’에 대해서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했던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浮’를 脈이 뛰는 위치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脈을 잡는다고 하면 특정한 어느 부위에 손을 대어 기운의 박동을

10) 張介賓, 『張氏類經』, 成輔社, p. 130. 脈得春氣, 雖浮動而未全出, 故如魚之遊在波也. 脈得夏氣則洪盛於外, 故泛泛乎如萬物之有餘也. 脈得秋氣則洪盛漸斂, 故如欲蟄之蟲將去也. 脈得冬氣, 沈伏在骨, 故如蟄蟲之周密, 君子之於斯時, 亦當體天地閉藏之道, 而居於室也.

1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上), 素問懸解, 人民衛生出版社, p. 64~65. 春日浮, 如魚之遊在水波之下, 半沈半浮也. 夏日在膚, 泛泛乎如萬物之有餘, 則全浮矣. 秋日下膚, 如蟄蟲之將去, 半浮半沈也. 冬日在骨, 如蟄蟲之周密, 君子之居室, 則全沈矣.

12) 張琦, 『素問釋義』,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 53. 此四時之脈象, 春弦夏洪秋毛冬石是也.

느껴야 한다. '夏日在膚' '秋日下膚' '冬日在骨'에 비추어 볼 때,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부위를 설정했다면, 봄에는 마땅히 여름의 '膚'보다 더 表層에서 맥이 뛰는다고 해야 하는데, 皮膚보다 더 밖에서 脈을 잡는 곳으로 '春日在□□'할 때의 '浮'라는 위치를 설정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이다. 둘째는 전체를 보았을 때 계절에 따른 설명의 차이가 있지만 '浮'를 脈象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春日浮'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內經」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각 계절에 따른 설명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春	春日浮	如魚之遊在波	弦
夏	夏日在膚	泛泛乎萬物有餘	鉤
秋	秋日下膚	蟄蟲將去	毛
冬	冬日在骨	蟄蟲周密, 君子居室	石

①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절에 따라 맥이 뛰는 부위를 설명하고, ②에 해당하는 부분은 ① 부위에 나타나는 맥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맥상은 바로 ③에 해당하는 四時脈이다.<sup>13)</sup> 그러므로 '如魚之遊在波'가 浮脈을 표현한 것이라 하여 '春日浮'의 '浮'를 浮脈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마치 膚에 나타나는 맥이 鉤脈이라고 해서 '在膚'를 鉤脈이라 해석하거나, 骨에 나타나는 맥이 石脈이라 하여 '在骨'을 '石脈'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봄에 대하여 '浮한 部位'에 나타난다는 의미와 그것이 '浮脈'이라는 것은 구분지어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13) 앞서 살펴본 것처럼 張琦는 이를 弦 鉤 毛 石으로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浮'를 다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맥이 뛰는 위치로 해석할 수 있을까?

## IV. 고 찰

### 1. 人體 部位에 대한 層次

먼저 皮毛에서부터 骨髓에 이르기까지 身體 部位를 藏府나 季節과 연관시킨 내용을 살펴보면, 「內經」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이 있다.

①-㉑ 무릇 邪氣가 형체에 머무를 때는 반드시 먼저 皮毛에 깃드는데, 머물렀다가 물러가지 않으면 들어가 孫脈에 깃들고, 머물렀다가 물러가지 않으면 들어가 絡脈에 깃들고, 머물렀다가 물러가지 않으면 들어가 經脈에 깃들고, 안으로 五藏에 이어지며 腸胃에 흠어진다. 陰陽이 모두 감수되면 五藏이 이에 손상을 입으니, 이것은 邪氣가 皮毛로부터 들어와 五藏에 이르는 순서이다.<sup>14)</sup>

①-⑥ 봄에는 絡脈을 취하고 여름에는 分腠를 취하고 가을에는 氣口를 취하고 겨울에는 經輸를 취한다. 무릇 이 네 계절은 각기 때로써 가지런함을 삼으니, 絡脈은 皮膚를 다스리고 分腠는 肌肉을 다스리고 氣口는 筋脈을 다스리고 經輸는 骨髓를 다스린다.<sup>15)</sup>

②-㉑ 이런 까닭으로 봄 기운은 經脈에 있고 여름 기운은 孫絡에 있고 장하 기운은 肌肉에 있고 가을 기운은 皮膚에 있고 겨울 기

14) 「素問」 「繆刺論」, p. 224. 夫邪之客於形也, 必先舍於皮毛, 留而不去, 入舍於孫脈, 留而不去, 入舍於絡脈, 留而不去, 入舍於經脈, 內連五藏, 散於腸胃, 陰陽俱感, 五藏乃傷, 此邪之從皮毛而入, 極於五藏之次也.

15) 「靈樞」 「寒熱病」, pp. 130~131. 春取絡脈, 夏取分腠, 秋取氣口, 冬取經輸. 凡此四時, 各以時爲齊. 絡脈治皮膚, 分腠治肌肉, 氣口治筋脈, 經輸治骨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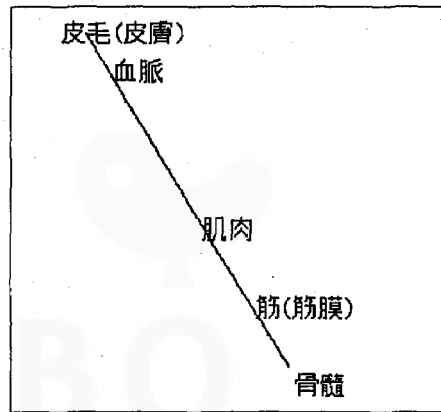
운은 骨髓 가운데 있다.<sup>16)</sup>

②-⑥ 肺는 몸의 皮毛를 주관하고 心은 몸의 血脈을 주관하고 肝은 몸의 筋膜을 주관하고 脾는 몸의 肌肉을 주관하고 腎은 몸의 骨髓를 주관한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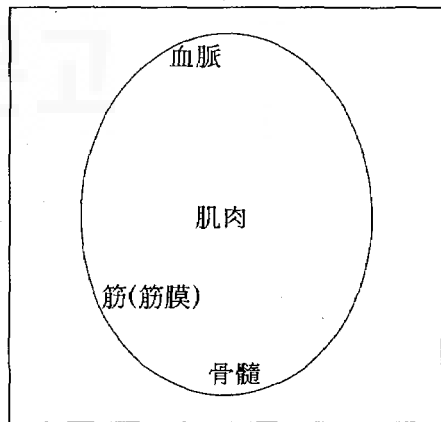
①-④ 「繆刺論」에 나오는 내용은 계절이나 장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表層인 皮膚로부터 深部인 五藏에 이르기까지 층차를 나누어 설명하였으므로 함께 고찰하였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은 「陰陽應象大論」<sup>18)</sup> 「皮部論」<sup>19)</sup> 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①-④ 「寒熱病」에서는 春夏秋冬에 각각 '絡脈-分膜-氣口-經輸'를 취하여 '皮膚-肌肉-筋脈-骨髓'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氣口나 經輸가 어디를 말하는지에 대하여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미는 봄에는 기운이 皮膚에 있기 때문에 皮膚가 병들면 絡脈을 취하고 여름에는 기운이 肌肉에 있기 때문에 分膜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②-④ 「四時刺逆從論」에서는 春夏秋冬에 각각 '經脈-孫絡-肌肉-皮膚-骨髓'를 연결하여 이곳에 기운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②-⑥ 「痿論」에서는 肝心脾肺腎에 각각 '筋膜-血脈-肌肉-皮毛-骨髓'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오장이 사계절에 상응한다고 하면 표현하는 부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四時

刺逆從論」과 「痿論」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앞서 「繆刺論」이나 「寒熱病」에서 설명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많다. 즉 「繆刺論」과 「寒熱病」에서는 表部에서 深部로 깊어지는 단계로 설명을 하였고, 「四時刺逆從論」과 「痿論」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단계로 설명을 하였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그림 2】

즉 【그림 1】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과정이 증시된 표현이며, 【그림 2】는 내부 기운이 겉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

16) 「素問」 「四時刺逆從論」, p. 229. 是故春氣在經脈, 夏氣在孫絡, 長夏氣在肌肉, 秋氣在皮膚, 冬氣在骨髓中.  
 17) 「素問」 「痿論」, p. 166. 肺主身之皮毛, 心主身之血脈, 肝主身之筋膜, 脾主身之肌肉, 腎主身之骨髓.  
 18) 「素問」 「陰陽應象大論」, p. 25. 故邪風之至, 疾如風雨, 故善治者治皮毛, 其次治肌膚, 其次治筋脈, 其次治六府, 其次治五藏. 治五藏者, 半死半生也.  
 19) 「素問」 「皮部論」, p. 193. 是故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邪中之則腠理開, 開則入客於絡脈, 留而不去, 傳入於經, 留而不去, 傳入於府, 廩於腸胃.

어오는 과정이 중시된 표현이다. 이와 같이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자연계 기후변화와 인체 활동의 상관관계를 살피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였는가에 따라 계절에 상응하는 부위의 淺深이 다르게 설정될 수가 있다.<sup>20)</sup> 부연하면, 가지고 있던 기운을 소모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오장활동을 파악하면 그 발현부위는 '筋-血脈-肌肉-皮毛-骨髓'가 되며, 외부로부터 기운을 받아들이는 고정을 중심으로 오장활동을 파악하면 그 발현부위는 '皮毛-絡脈-經脈-肌肉-筋骨'로 표현될 수 있다<sup>21)</sup>는 것이다.

따라서 '春日浮'의 '浮'를 脈象으로 해석하면 【그림 2】에서처럼 겨울에 잠잠되었던 陽氣가 솟아오르며 나타나는 형태로서의 浮脈을 표현하게 된다. 王冰 이하 여러 주석가들의 설명이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 대해서도 맥상으로 설명한다면 【그림 2】에 비추어 보았을 때 膚, 下膚, 骨을 맥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림 1】에 견주어 부위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浮'를 脈象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平人氣象論」<sup>22)</sup>이나 「玉機眞藏論」<sup>23)</sup>에서 '逆四時'를 설명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면 봄과 여름에는 脈이 浮大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脈이 沈遲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설명에 비추어 본다면 「脈要精微論」의 '春日浮'를 浮脈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지만, '夏日在膚'에서의 '膚'도 浮大한 脈象으로 설명해야 하고, '秋日下膚'에서 '下膚'는 沈遲한 脈象으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

긴다. 그러므로 '春日浮'의 '浮'를 脈象으로 설명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다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부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浮'의 위치

그렇다면 '浮'를 부위로 본다면 어느 정도 깊이이며,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일까?

앞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봄에 상응하는 부위는 여름에 상응하는 부위보다 더 밖에 위치하거나, 겨울에 상응하는 부위와 여름 가을에 상응하는 부위 사이 어디쯤인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脈要精微論」에서는 이미 '浮'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如魚之遊在波'라 하였으므로 당연히 여름의 '膚'보다 더 바깥쪽 어디를 말해야 할 것이다. 「內經」에서 '膚'보다 더 바깥쪽을 설정한 곳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봄에는 기운이 터럭에 있고 여름에는 기운이 皮膚에 있고 가을에는 기운이 分肉에 있고 겨울에는 기운이 筋骨에 있으니, 이와 같이 병든 경우를 鍼刺할 경우에는 각기 그 때로써 가지런함을 삼아야 한다.<sup>24)</sup>

(前略) …… 그러므로 말하기를, 病이 毫毛腠理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皮膚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肌肉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脈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筋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骨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髓에 있는 경우도 있다. …… (後略)<sup>25)</sup>

20) 嚴東明, 四時刺法에 대한 研究, p. 30. 慶熙大學校 大學院.

21) 嚴東明, 上揭書, p. 30.

22) 「素問」, 「平人氣象論」, p. 66. 春夏而脈瘦, 秋冬而脈浮大, 命曰逆四時也.

23) 「素問」, 「玉機眞藏論」, p. 75. 於春夏而脈沈澹, 秋冬而脈浮大, 名曰逆四時也.

24) 「靈樞」, 「終始」, p. 73. 春氣在毛, 夏氣在皮膚, 秋氣在分肉, 冬氣在筋骨, 刺此病者, 各以其時爲齊.

25) 「素問」, 「刺要論」, p. 188. 黃帝問曰, 願聞刺要. 岐伯對曰, 病有浮沈, 刺有淺深, 各至其

즉 「終始」에서는 계절에 따라 기운이 어디에 있는지 차이가 나며, 기운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 기운이 있는 곳과 가지런하게 침을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봄에 기운이 머무는 毛와 여름에 기운이 머무는 皮膚를 살펴보면 당연히 毛가 皮膚보다 바깥쪽 부위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刺要論」에서는 사기가 든 곳에 정확한 깊이로 침자할 것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위의層次를 매우 자세히 나누어 놓았다. 疾病이 드는 부위를 '毫毛腠理-皮膚-肌肉-脈-筋-骨-髓'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鍼刺해야 다른 部位를 손상시키지 않아서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고 병이 낫는다고 하였는데, 바로 여기에서 皮膚보다 더 바깥쪽 부위로 毫毛腠理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皮膚보다 더 바깥쪽 즉, 솜털이 솟아난 부분으로 살갗에 닿기 전에 외부 기운이 인체와 만나는 곳이 바로 毫毛腠理인 셈이며, 바로 이 부분이 「終始」에서 말하는 '毛'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脈要精微論」 「春日浮」에서 말하는 '浮'를 부위로 설정한다면 이들은 서로 같은 부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終始」의 '毛'와 「刺要論」의 '毫毛腠理'와 「脈要精微論」의 '浮'는 같은 곳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皮膚보다 더 바깥쪽에서 기운을 느낀다고 해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如

魚之遊在波'라는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魚之遊在波'는 물고기가 수면보다 위쪽으로 뛰어올라 물결과 같은 높이에서 노는 모습을 형용한 것인데, 물고기에 비유되는 脈이 皮膚에 비유된 수면보다 위에 나타난다는 설명을 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설명은 「禮記」 「月令」<sup>26)</sup>이나 「素問」 「四氣調神大論」의 王冰注<sup>27)</sup>에서 '봄 석달에는 물고기가 얼음 위로 뛰어 오른다'고 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浮를 皮膚보다 바깥쪽 솜털이 솟아난 부위로 설정하여, 봄에는 脈이 皮膚보다 더 떠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다른 계절에 부위를 설정하는 내용과 일관된 논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脈要精微論」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봄에는 손가락이 피부에 닿기 전에 미리 맥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여름에는 皮膚에서, 가을에는 皮膚아래에서, 겨울에는 骨에서 해당 계절의 기운을 알 수 있듯이, 계절에 따라 점점 깊게 눌러서 진맥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V. 결 론

「素問」 「脈要精微論」의 '春日浮'에 대하여 대부분의 「內經」 주석가들은 "봄날에는 脈이 浮하게 나타난다."로 해석하였는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 앞 뒤 문맥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다른 계절에서 모두 脈이 뛰는 '위치'를 언급하였다면 '春日浮' 또한 봄에 맥이 뛰는 '위치'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理, 無過其道, 過之則內傷, 不及則生外壅, 壅則邪從之. 淺深不得, 反爲大賊, 內動五藏, 後生大病. 故曰病有在毫毛腠理者, 有在皮膚者, 有在肌肉者, 有在脈者, 有在筋者, 有在骨者, 有在髓者. 是故刺毫毛腠理無傷皮, 皮傷則內動肺, 肺動則秋病溫病, 泝泝然寒慄, 刺皮無傷肉, 肉傷則內動脾, 脾動則七十二日, 四季之月, 病腹脹煩, 不嗜食, 刺肉無傷脈, 脈傷則內動心, 心動則夏病心痛, 刺脈無傷筋, 筋傷則內動肝, 肝動則春病熱而筋弛, 刺筋無傷骨, 骨傷則內動腎, 腎動則冬病脹腰痛, 刺骨無傷髓, 髓傷則銷鑠胎酸, 體解休然不去矣.

26) 「禮記」, 保景文化社, p. 188. 春三月, 魚上冰.

27) 王冰, 上揭書, p. 9. 然立春之節, 初五日, 東風解凍, 次五日, 蟄蟲始振, 後五日, 魚上冰, 次雨水氣, 初五日, 獺祭魚, 次五日, 鴻鴈來, 後五日, 草木萌動.

‘春日浮’에서 ‘浮’를 脈象을 표현하는 ‘浮脈’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맥이 뛰는 위치를 표현하는 ‘ 뜬 자리’로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夏日在膚’, ‘秋日下膚’, ‘冬日在骨’과 마찬가지로 ‘春日浮’도 ‘如魚之遊在波’에 빗대어 봄에 脈이 뛰는 위치를 설명하는 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浮’를 위치로 설정한다면 이곳은 바로 「終始」에서 말하는 春氣가所在하는 ‘毛’나 「刺要論」에서 언급하는 ‘毫毛腠理’에 상응하는 부위를 말한다. 즉 ‘浮’는 당연히 피부보다 더 바깥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피부 바깥쪽 솟털이 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春日浮, 如魚之遊在波’는 마땅히 “봄날에는 脈이 皮膚보다 떠서 나타나는데, 마치 물고기가 물결에서 노니는 것과 같다.”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脈要精微論」 문장 ‘春日浮, 如魚之遊在波, 夏日在膚, 泛泛乎萬物有餘, 秋日下膚, 蟄蟲將去, 冬日在骨, 蟄蟲周密, 君子居室.’은 ‘春日浮’ ‘夏日在膚’ ‘秋日下膚’ ‘冬日在骨’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 계절에 脈氣가 드러나거나 맥을 살피는 부위를 설명하고, ‘如魚之遊在波’ ‘泛泛乎萬物有餘’ ‘蟄蟲將去’ ‘蟄蟲周密, 君子居室’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각 사시맥인 弦脈 鈎脈 毛脈 石脈을 표현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봄에는 손가락이 皮膚에 닿기 전에 미리 맥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여름에는 피부, 가을에는 피부아래, 겨울에는 뼈에 이르는 부위까지 점점 깊은 부위에서 진맥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VI. 참고문헌

- 高士宗, 『黃帝素問直解』(第二版),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一中社 影印.
-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 嚴東明, 『四時刺法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 『禮記』, 保景文化社.
- 吳崑, 『內經素問吳注』,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1994.
- 張介賓, 『張氏類經』, 成輔社, 1982.
- 張琦, 『素問釋義』,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 張志聰, 『新編素問集註』, 大星文化社, 1994.
-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1982.
- 陳夢雷 等, 『圖書集成醫部全錄』 제1권, 大星文化社, 1986.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5.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1985.
-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素問懸解, 人民衛生出版社, 1990.
- 高士宗, 『黃帝素問直解』(第二版),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一中社 影印.
- 丹波元堅, 『素問紹識』, 人民衛生出版社,